

Nr. 2023 - 11-12

성찰



Licht und Salz



9월 24일 뮌헨교구 외국인 공동체 미사 Gottesdienst der Natio-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성찰

편집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1885년 작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대천사 미카엘의 성찰과 깨달음을 이 곳에 옮겨 봅니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러 인간 세상에 내려 온 대천사 미카엘은 그녀의 안타까운 사정에 홀로 하늘나라로 돌아 갑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천사 미카엘은 그 후 오래 인간 세상에 머무르며 만난 사람들에게서 그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 왔습니다. 평소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고인의 삶을 추모하는 의미로 화려한 복장으로 참석해 달라는 유족의

모든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도

다만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전쟁과 평화, 레프 톨스토이-

성찰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공소 글 (뉘른베르크-에를랑겐) / 조예진 아델리나

혼배성사 후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

-



2023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시작 (Neuanfang)

3,4월 평화 (Friede)

5,6월 감사 (Dankbarkeit)

7,8월 휴식 (Pause)

9,10월 순교 (Martyrium)

11,12월 성찰 (Reflexion)



10월 1일 원현 공동체 추석 미사

“사랑하기 위해 죽는 자 영원히 살리라!”

교회는 위령성월에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죽으니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죽음을 닮은 삶을 살으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아등바등 살다가도 누가 갑자기 죽었다 하면, 이렇게 사는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 상하고 상처주고 받고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 이게 다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용서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회개, 겸

손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11월 위령성월에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내가 죽는다면, 지금 내가 목메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음을 알면서



도, 붙잡고 있는 불쌍한 나의 영혼을 바라봅시다.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오늘 나는 더 이상 슬퍼할 일도, 화를 낼 일도,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만일 그 누구의 삶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무조건 감사



위령성월 그리고 성찰

위령성월 – 죽음과 겸손에로의 초대

“하느님을 찾는 시간, 그 것이 이승의 삶이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그 때가 죽음이며, 그분을 차지하게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영원이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 순종하는 자연에게서 늦아짐과 죽음을 배우는 이 계절에 우리는 11월 위령성월을 보냅니다. 이미 한 생을 불사르다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아울러 피하지 못할 우리의 한계, 죽음도 미리 묵상하는 달입니다. 바로 11월 위령성월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죽음과 겸손에 대해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형제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

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로마 14,7-9)

바로 사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은 탁월합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런지)

주님을 위해 산 이에게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고 있다면, 무조건 겸손해야 합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감사와 겸손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상 아래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서 조용히 기도해 봅시다. 내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기도를 바칠 것이며, 이 밤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더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며 더 사랑하도록 더 인내하도록 은총을 청해 봅시다.

그리고 성찰

판공성사(성탄, 부활 전 고해성사)를 앞둔 어느 자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겨운 판공성사표가 또 나왔다. 또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고백을 해야 하나? 무슨 죄를 짜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듣게 됩니다.

“시래기 죽을 먹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식사 시간만 되면 상을 차려 놓고 슬그머니 배가 아|||프다며 나가셨습니다. 우리 여섯 남매는 시래기죽을 서로 차





10월 3일 원현교구 견진성사



견진성사 를

다. 그렇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반대이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외양에 등한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필수라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젊음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교양미를 가꿀 줄 알아야 한다. 호트리지고 단정치 못한 옷차림, 거기다 음식은 행동을 하는 나이 든 분들을 대하게 되면 추하단 생각이 든다. 나 다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떠한 장소나 모임에서 적당한 유머를 센스있게 써 먹을줄 아는 멋진 노익장.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자신이 평소 그런 마음가

짐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급게 늙으신 어르신들을 마주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품격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이다.

영혼을 적셔줄 만한 좋은 책을 읽고 기도와 성찰로 일상의 먼지를 마음으로부터 씻어 내어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유하는데 전심을 다하고 싶다.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되도록 모든면에 관대하고 판단에 그르지 않는 행동을 하여 엉뚱한 곡해나 오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후세들로부터 멋진 노인네 내지 늙은 인격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과히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닌 것 이다. 속수무책으로 달려가



살아가는 이야기

성찰

전영민 수산나

세월처럼 비정한 것이 또 있을까?
아직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 제발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달려가
는 세월! '바빠 가는 세월아 나 너
를 붙잡지 않겠다' 하고 조바심나
는 마음을 내려 놓으니 오히려 느
긋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이번 달 주제는 성찰이다. 일상에
서 마주치는 어려운 일들, 잘 풀리
지 않는 것들을 두고 세상 탓, 남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스스로 자
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이 잘 풀려나
갈 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
니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마
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
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쏠살 같이 달려 가
는 세월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을 위해 매일의 생활 안에서 잠시
만이라도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성

찰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청년시기에 우리의 젊음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시간의 속박 없이 마
냥 헤프게 써 버린 듯한 생각이 드
는 것이다. 갈수록 새로운 계절은
느닷 없이 들이닥치고 안개 속 숲
길 걸으며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그렇게 슬금슬금 나이를 먹고 나
니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좀 더 알
차게 보내지 못 한 것에 대한 후회
가 아쉽게 다가 온다.

사람이 늙었다 혹은 젊었다 하는
기준은 시간과 달력에 의한 판단
이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표준으
로 한 말은 아니라고, 나이가 들어
도 젊었을 때 감정 못지 않게 사랑
을 느끼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고 자신을 다독거려 보지만, 세월
이 흐르고 노안이 오니 어떻게 하
면 늙어가는 육신을 교묘하게 감
추어 감쪽 젊어 보이는 외모를 꾸
며 볼까, 고심 하는 날이 온 것이



10월 8일 세례성사



공소글

성찰

조예진 아델리나 (뉘른베르크-에를랑겐 공동체)

일상에서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성찰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걸까요?

천주교에서는 성찰이 고해 성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저의 제일 최근 고해성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에서 미사를 드리다보니 주로 부활절이랑 성탄절에 고해 성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찰을 모아서 하게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 큰 사건이 있지 않았던 이상 죄를 떠올리는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떠올려고 하는것보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 일상

생활을 임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많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거나 사소한 일에 크게 자책하는 저의 모습들이 기억 났습니다. 사실 성찰을 하고 죄를 찾아서 고해 성사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는 목적도 있지만 제 자신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것 같습니다.

사실 고해 성사 보기 전에 하는 성찰 이외에는 일상에서도 습관적으로 성찰을 합니다. 사실 제 하루를 돌아켜보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의 의미와는 다르게 규칙적으로 성찰할 때에는 잘못된것만을 찾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반성할게 있는 만큼 제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봅니다. 만약에 제가 하루 동안의 마음만 성찰한다고 했을



10월 15일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 혼배성사

축하합니다

혼배성사 후 행복했던 기억을 떠

안녕하세요 원헌 본당 빛과 소금 편집부를 맡고 있는 유재민 노엘, 백효현 로사 입니다.

매번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통해서 찾아 뵙다가 이렇게 저희의 혼배 미사소식글을 올려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지난 10월 7일 토요일에 대구 범어대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잘 마치고 원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의 만남을 처음부터 지켜봐주신 최석환 요셉 신부님의 주례 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당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배미사를 드리는 한시간 동안 원헌에서 학생으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대 전역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 뉘른베르크에서 원헌 11으로 이사 온 저희 둘이 원헌 한인성당에서 만나 편집부에서 함께 봉사하며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에서 혼자 유학생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각자 신앙 생활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0월 10일 독일 교포 사목 회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되리라.

- 1요한 3,2 참조

도서 '깊이 뿌리내린' - 화해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화해해서 유럽연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 유럽에서 얼마 지내보니 더 와닿게 된 물음이었습니다. 두 국가는 1871년 보불전쟁부터 제1차, 2차 세계대전까지 끔찍한 전쟁을 세 차례나 치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경제공동체를 거쳐서 형성된 오늘날 유럽연합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 둘의 화해와 연대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답변을 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 인식. 독일은 역사적 반성을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적대감을 넘어 상생해야 한다는 역

사적 과제를 인식한 것이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나라는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적 토양.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에토스, 즉 공동체적 정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에 바탕을 둔 유럽의 문화적 토양이죠.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의 역할. 프랑스의 로베르 쉬망과 독일의 아데나워와 같은 이들의 활약이 중요했습니다. 1950년 5월 9일 '쉬망 선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비전은 물론이며,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 아프리카의 발전 도모, 하나의 유럽을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쉬망의 보편주의적 비전은 가톨릭 세계관에 바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5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